Mr.피자 본사·가맹점 갈등 해소… 서울시 1년중재 결실

연내 가맹점 구매협동조합 설립
내년 25개 품목 자율·공동 구매

본사, 자사주 출연 복지재단 설립
매년 영업이익의 10% 출연키로

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스터피자 상생협약 타결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과 김흥연 MP그룹 사장(왼쪽 두번째), 이동재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선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일단락된 가운데 상생협약이 타결됐다. 미스터피자는 기업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지자, 본사와 가맹점들 사이의 갈등이 커진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본사는 가맹점 수익개선을 위해 25개 품목들에 대해 자율구매 토록 하고, 복지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가맹점들은 구매협동조합을 연내 설립할 예정이며, 조합을 통해 자율구매품목을 공동구매할 예정이다.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들의 상생협약식이 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 김흥연 MP그룹(본사) 사장, 이동재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미가협) 회장 등 가맹점주들과 김남근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7월 MP그룹 회장 검찰조사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주 매출이 하락하며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이 격렬해지자, 양 당사자들은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 시는 그동안 27차례 공식회의를 통해 중재를 진행한 바 있다.

김흥연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는 "미스터피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하고 가맹점의 성공을 위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재 미가협 회장은 "이번 상생합의는 가맹점주들의 경제적 공동체 구성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고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담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매협동조합을 활용하여 공동구매 외 단체보험, 방역서비스 등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생합의에 따라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했던 필수구입 품목 중 냉동새우, 베이컨, 샐러드 등 25개 품목을 2019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본사 식자재 매출의 약 30%(연간 120억원)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미가협은 국내 최초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연내 완료하고, 이를 통해 자율구매품목으로 전환되는 품목들을 공동구매해 매입원가를 절감하는 동시에 원·부자재 공급 구조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들은 구매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19년 1월부터 본사가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품질기준을 수립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본사는 또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소유한 자사주 210만주를 출연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재단법인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복지 재단에 출연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대외환경 악화로 본사와 점주간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체결한 상생협약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이관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서울 알바 일자리 10중 1곳 '강남구'

알바몬 상반기 채용공고 분석

강남 〉 마포 〉 송파 〉 영등포구 順

서울시내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강남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알바 일자리 10개 중 1개는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9일 알바몬이 올해 상반기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시 내 알바 채용공고를 행정구역과 업·직종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채용공고 중 13.5%가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이어 ▲마포구(6.8%) ▲송파구(6.6%) ▲영등포구(6.0%) ▲서초구(5.8%) ▲중구(4.8%) ▲종로구(4.3%) ▲강서구(4.2%)에 소재한 기업들 중 알바직원 채용을 진행한 기업이 많았다.

이와 비교해 양천구(2.3%), 성북구(2.1%), 은평구(2.1%), 강북구(1.7%), 중랑구(1.7%), 도봉구(1.0%)에는 상대적으로 알바 일자리가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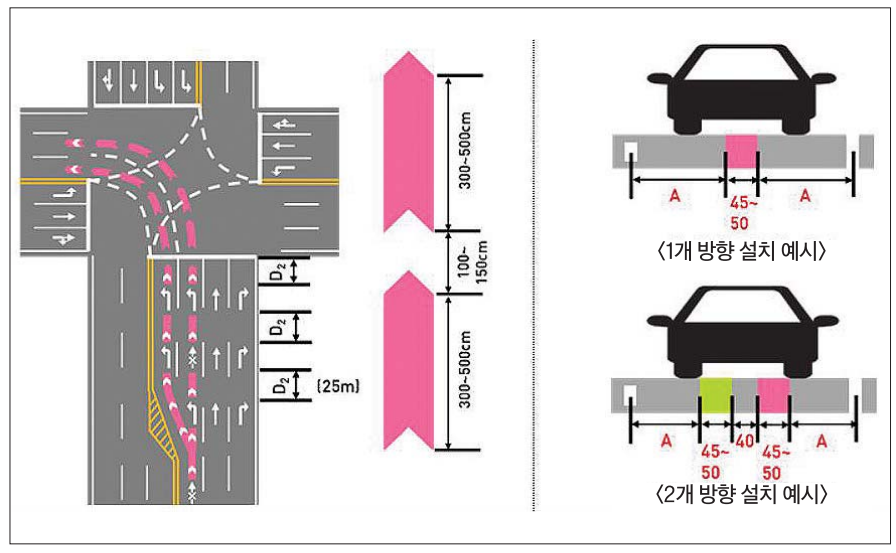
알바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알바'(11.6%), '커피전문점 알바'(10.1%)가 가장 많았고, 이어 '매장관리/판매' 알바가 6.1%, '사무보조'와 '고객상담/인바운드' 알바가 각 4.6%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용수 기자 hys@

교통사고 줄이는 '주행유도선' 48곳 추가설치

사고위험도·차로변경 절반 감소
이전 설치 시설물 전수조사키로

〈국토교통부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매뉴얼 예시〉



/자료=서울시

도로의 분홍색 주행유도선이 교통사고 위험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주행유도선을 다음달부터 48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주행유도선(노면색깔유도선)은 주행방향이 여러 갈래이거나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와 도시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운전자가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분홍색 바닥선이다.

9일 서울시는 '주행유도선'이 그려진 교차로의 전·후 교통안전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 사고위험도와 차로변경 건수 모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곳 시범설치 이후 교차로 내부 차로 변경 건수가 21%, 사고위험도가 14% 감소했다. 지난해 20곳으로 설치 지점을 확대하고 주행유도선을 주행방향 안내시설물로 홍보하면서, 차로변경건수 50% 감소, 사고위험도 45% 감소 등 명확한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다음달부터 주행유도선을 서울시내 곳곳 48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주행유도선은 현재 23곳에서 71곳으로 3배 확대된다. 추가로 그려질 48곳 주행유도선은 올림픽대로 수서IC, 강남대로 한남IC(압구정역 방향), 원남사거리, 한국은행 앞 교차로 등이다. 교차로에 32곳, 도시고속도로 분기점 16곳에 그려진다.

시는 이번에 설치하는 주행유도선에 국토교통부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의 색상, 규격 등을 적용하고, 지난해 12월 매뉴얼 제정 이전에 설치한 시설물은 전수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추가 설치지점의 교통안전 효과 분석을 통해 복잡한 교차로에 진입하는 초행길 운전자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사고위험 지점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2019년부터 무분별한 주행유도선 설치 방지를 위해 보다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여름의 소리 찾아요"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송정제방산책로에서 어린이들이 숲해설가 선생님의 매미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매미를 채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 건강행태·정신건강 실태 파악 나선다

서울시, 2018 지역사회건강조사

2만3천명 표본추출·가정방문
21개 영역 총 238개 문항 수집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인 약 2만3000명을 표본으로 추출, 각 가정을 방문해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해 25개 자치구별 900여명을 추출, 성인 건강 실태조사를 이 같이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시·군·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조사가구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전체가 조사대상자가 된다. 조사방법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 대상자를 만나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건강행태, 정신건강, 삶의 질 등 21개 영역 총 238개 문항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대상자의 키와 몸무게를 설문조사가 아닌 조사원이 직접 측정해 보다 정확한 지역별 비만율을 산출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건강통계 생산 목적 이외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은 보장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완료인 오는 11월후 일괄 파기한다.

시는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흡연, 운동, 식생활, 비만, 구강건강, 정신건강, 이환, 사고, 개인위생 영역을 좀 더 상세히 조사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내년 4월 이후에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서울시, 취약계층 '심야 무더위쉼터' 운영

서울시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시교육청, 자치구 10곳과 협력해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심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는 어려운 이웃들이 오후 9시 이후 학교 무더위 쉼터에서 쾌적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운영 수요가 높은 강남구 세명초등학교, 양천구 양서중학교 등 11개교(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를 시교육청과 협의해 심야 무더위 쉼터로 우선 선정했다. 시는 향후 지원이 시급한 곳에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무더위 쉼터는 폭염특보 발령 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지역여건과 학교특성을 고려해 쉼터 운영시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